

길 위에서도 노들야학의 수업은 계속된다

글·박경석 partisan98@hanmail.net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가을녘 풍성한 들판을 바라보며 수확의 기쁨을 평등하게 나누어 가질 희망을 담은 말이지요. 그러한 희망을 일구기 위해, 노들야학은 배움의 기회를 빼앗겼던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1993년 정립회관 내 무상으로 임대한 20여평의 공간에서 시작한 노들야학. 세 칸의 교실로 이루어진 교무실. 하루 4시간,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공휴일도 쉬지 않은 주 5일 수업. 우리, 한소리, 불수레, 청솔 4개반에 100여명의 교사와 200여명의 학생들. 노들야학은 그렇게 14년하고도 다섯 달을 달려왔습니다.

2008년, 사활을 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약속된 그날은 노들야학 교실공간의 퇴거일이었습니다.

정립회관 측은 ‘자체 프로그램 운영 공간과 관리비 부족’으로 현재 노들야학이 사용하고 있는 교실 공간에 대해 12월 31일까지 퇴거할 것을 여섯 차례 요구해 왔습니다. 14년 동안 장애성인 교육 사업을 진행해온 노들야학이 하루아침에 교실을 잃고 나왔게 된 데 대해 서울시청은 교육청과 교육부로 그 책임을 떠넘겼고, 교육청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시설 관련 예산은 지원 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했습니다.

땅 값이 나날이 치솟는 이 서울 땅에, 노들야학의 60여명이 갈 곳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공부할 공간이, 사람을 만날 공간이, 그저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 어느 곳에도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곳저곳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결국 노들야학은 15년 동안 공부해왔던 교실에서 쫓겨나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겸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정립회관에는 거대한 수영장과 주차장이 만들어졌고 일반인들에게 유료로 개방되었습니다. 그러느라 공간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학생들 대부분이 ‘초중등교육법상에 규정된 그 학교’의 높은 벽 앞에 좌절했습니다. 현재도 넘치고 넘치는 그 법적인 학교들은 그 어느 곳도 장애인들의 교육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러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대학의 자율과 경쟁을 이야기합니다. 사교육비가 수조원에 달하고 하버드대 재학생 중 한국인이 세 번째로 많다고 자랑스레 떠듭니다.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으로 합격이 취소된 44명의 거취를 두고 온 나라가 들쭉였지만 한편에서는 학교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한 40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덧셈을 헤아릴 교실 공간 하나 구하지 못하고 추운 길바닥에 천막을 친데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1천여 명의 등급을 오르고 내린다는 수학능력복수정답에 그 난리가 벌어지는데, 100만 명의 장애인이 초등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는 누구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람대접 받고 살기 위한 교육, 그것이 과한 욕심입니까?

장애인구의 45.2%가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학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제 실시 이후 등록된 장애인이 대략 220만 명 정도 됩니다. 100만 명 정도의 장애인이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겨우 졸업한 학력으로, 이 살벌한 자본주의 경쟁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 살며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이 교육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요, 국민의 의무라 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들은 그 사회적 관계를 맺을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국가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 가족은 그 의무를 방기하였지요. 정부는 잘난 사람에게 투자하기도 바쁘고 그 돈도 모자란다 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중증장애인에



마로니에 천막야학

게 무슨 교육이었겠습니까. 가족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병신 자식' 업고 학교 보낸들 무슨 영광을 보겠냐 했겠지요. 먹고 자고 싸는 것만이라도 조용히 해결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 여겼을 겁니다. 그나마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장애인들은 시설에 '수용'되어 온갖 폭력과 성추행을 감내하며 살아가는데, 교육은 차라리 사치겠지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가운데, 중증장애인들은 사회가 만든 감옥, 그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방치되었습니다.

학교를 가지 못하니, 내세울 변변한 학벌하나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는 단지 배우지 못한 설움이 아니라 삶 전체의 차별과 억압으로 귀결되어 장애인을 이 사회의 가장 낮은 위치에 묶여있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악순환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싶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삶을 바랄 뿐입니다. 학교를 다닌 모두에게 '학교'가 그랬듯이, 노들야학 또한 단지 검정고시 자격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며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고 싸우고 상처받고 치유하며 성장하는 그런 학교 말입니다.

교실, 그 작고 소중한 권리를 지켜주세요

대학은 왕국처럼 현란하고, 하루아침에도 고층 빌딩이 쏠다 사라지는 일쯤 아닌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커다란 운동장을 대규모의 강당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걸음이 느린 정란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우준의 거대한 전동휠체어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넉넉한, 수동휠체어를 탄 영애가 눈이 와



“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한글을 배우고 숫자를 헤아릴 공간이지만, 그것은 단정한 평의 교실을 넘어, 빼앗긴 장애인의 권리를 되찾는 일입니다.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또 배웠습니다. 그것이 지난 14년 동안 노들이 끝내 놓치지 않으려 했던 가치입니다.

”



매주 토요일 거리선전전

도 올 수 있는 평지에, 쉬는 시간 우르르 몰려가도 모두 볼 일을 볼 수 있게 넓은 화장실과 혹시 불이 나면 대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깬 그런 교실을, 더 많은 영애와 정란과 우준이 찾아올 수 있도록 너무 외지지 않은 곳에 내어 주십시오.

고작 60여명이 꾸려온 작은 학교가 하찮아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삶

그 자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성공을 위한 교육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저 사람대접 받고 살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것이 과한 욕심입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한글을 배우고 숫자를 헤아릴 공간이지만, 그것은 단지한 평의 교실을 넘어, 빼앗긴 장애인의 권리를 되찾는 일입니다. 천막수업, 좁고 불편하지만 즐겁게 하겠습니다.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또 배웠습니다.

그것이 지난 14년 동안 노들이 끝내 놓치지 않으려 했던 가치입니다. 차별받은 이들을 위한 교육이 실천 활동으로 이어져, 이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운 천막에 몸뚱이를 내던져, 이 사회의 야만적인 교육현실을 알려낼 수 있다면 그리하여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의 권리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만큼 훌륭한 현장학습도 없을 것입니다.

노들천막야학은 장애인의 빼앗긴 권리의 상징이며, 우리가 요구하는 교실은 지금-우리의 것을 넘어 전체 장애성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비록 좁고 좁지만 노들이 늘 그랬듯이 우리 스스로 권리를 찾고 쟁취하기 위한 일상의 수업, 그 즐거운 투쟁의 길을 가겠습니다.

길바닥에 나앉아도 수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박경석*

글 박경석 |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자료사진 | 노들야학